

# 회복과 불안의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

김정하\*\*

**초록** 이 글은 회복적 독해라는 비평적 미니멀리즘이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21세기 비평의 화두인 회복적 독해, 포스트비판, 비평적 미니멀리즘이 비판이라는 지적 실천의 규모와 확장성을 축소하면서 역사로부터의 유예 안에서 안도를 탐색하는 정동적 앎을 추구한다면, 가깝게는 20세기 중반 멀게는 20세기 초반부터 자체의 미학적 역사를 구축해온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은 비평적 미니멀리즘에 어떠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 글은 논의의 초점을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에 두고, 당대 미니멀리즘 문학의 보수주의가 정부, 대학, 대중과 같은 여러 사회적 장력들과의 역동 속에서 타협과 회복의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정을 우선 살펴본다. 간소한 플롯, 간단한 문장, 복잡하지 않은 인물, 제한된 정치적 전망으로 짜인 미니멀리즘 문학 공간 구성에는 음소거와 배제를 통한 회복의 지향이 있다. 이 회복은 국내적 백인 중심성과 국제적 미국중심주의를 재확인하는 탈역사주의적 시간적 정지로 귀결된다. 당대 미니멀리즘을 상징하는 카버(Raymond Carver)의 단편들은 이러한 논의를 구체화하는 작은 방들이다. 그러나 카버의 작품에 드러나는 반복을 들여다보면, 회복의 구축에 내적으로 저항하면서 그 형식화를 침식해가는 불안이라는 힘이 미니멀리즘을 구성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에서는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에 대한 이 같은 논의가 21세기 비평적 미니멀리즘에 시사하는 바를 간략히 논의한다. 비평적 미니멀리즘이 회복의 언어를 역사화하고 그 언어의 물화를 끊임없이 파열하는 불안을 사유할 때 비평을 스타일링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주제어** 미니멀리즘, 회복적 독해, 이브 세즈윅, 레이몬드 카버, 불안, 베트남 전쟁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3년도 인문학 강연-집필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원고임.

\*\*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 1. 회복적 독해와 미니멀리즘

넷플릭스 쇼 <곤도 마리에: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로 유명한 일본의 곤도 마리에에는 청소와 정돈의 영성을 전파하는 일종의 정리 전도사다.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버리면서 채우는 정리의 기적』, 『정리의 발견』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그녀에게 정리는 일종의 해독적 명상 행위다. 나를 더 이상 설레게 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과감히 버리는 정리를 통해 삶의 공간을 채웠던 독성은 정화된다.

당고(Michael Dango)는 곤도 마리에가 전파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해독과 회복의 키워드로 읽어내면서 미니멀리즘의 계보학을 재구성한다. 그는 집의 독성을 제거하는 것에 비유되는 곤도의 정리철학이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사적인 공간 회복과 연결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미국의 곤도 마리에 열풍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미술, 음악, 문학, 건축을 관통하는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이 보여주었던 해독적 행위성의 21세기 대중적 현현이라고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 세계의 독성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스스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미니어처 공간을 만듦으로써 세계에 대한 통제불가능의 감각을 상쇄하는 한편 회복이라는 환상을 꿈꾼다. 우리는 큰 것을 통제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때 작은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살아 나간다. 그리고 이 작은 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과감히 버려야 한다.<sup>1</sup>

당고가 회복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미국 미니멀리즘의 문화사는 최근 비평계의 화두인 이른바 회복적 전회와 시대적 진단을 공유한다. 회복적 독해라는 방법론 혹은 태도는 세즈윅(Eve Kosofsky Sedgwick)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가 거스르고자 했던 것은 1960년대 이래 신역사주의, 해체주의, 페

1 Michael Dango (2022), *Crisis Style: the Aesthetics of Repair*, Stanford: Stanford UP, pp. 47-108.

미니즘, 쿼어, 정신분석 비평 담론을 지배했던 경향, 즉 텍스트 안에서 억압과 폭력의 흔적을 의심하고 추적해서 폭로하는 “의심의 해석학”, “폭로의 편집증적 기획”이었다. 비판(critique)이라는 독해 행위는 폭력과 권력의 존재를 드러내는 작업이 새롭고 긴급했던 시기에는 정당성을 얻고 효용을 발휘했다. 하지만 자본과 국가의 폭력이 명백한 형태로 끈질기게 지속되는 지금, 이 같은 폭로의 해석학은 더 이상 새로운 정치적 전망을 열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읽는 행위를 편집증적 루프에 갇히게 만든다. 비판 대신 회복(reparation)을 새로운 독해의 방법론이자 태도로 제안하면서 세즈윅은 “어떤 문화가 공언하는 욕망이 우리의 존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오지 않았다 해도, 그 문화의 요소들로부터 계속 살아 나갈 자양물을 찾을 수 있는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방식들”<sup>2</sup>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회복적 독해라고 쓴다.

이때 세즈윅이 편집증적 독해와 회복적 독해를 견주며 크기와 강도의 차원을 들여오는 것은 흥미롭다. 그녀에게 편집증적 독해는 강하고 큰 이론이고 자신이 제안하는 회복적 독해는 작고 약한 이론이다. 이러한 규모의 비유를 통해 세즈윅은 편집증적 독해를 폐제하지 않고 여러 해석학적 가능성들 중의 하나로 상대화한다. 강한 이론은 넓은 규모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폭과 환원성을 갖춘 반면, 약한 이론은 “이론이 오직 ‘가까운’ 현상만을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명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묘사에 근접할 때” 탄생한다.<sup>3</sup> 작은 이론, 회복적 독해는 멀리 넓게 포괄하고 일반화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에 근접하도록 가까이 읽으면서 텍스트가 선사하는 우연과 놀람에, 뉘앙스와 태도에 열리는 것이다. 고통을 예측하며 영역을 확장하는 강한 이론과 우연적 정동에 열려있는 약한 이론이 서로 대립하는 방법론이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를 공유한다는 것이 세즈윅의 통찰이다.

2 Eve Kosofsky Sedgwick (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P, pp. 150-151.

3 Sedgwick (2003), p. 134.

“둘 중 어느 것을 더 현실적이라 부를 수는 없다. 이 둘이 현실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상실과 고통, 억압으로 가득한 이 세계에서 이 두 가지의 인식론 모두 깊은 회의주의에서 온 것이다.”<sup>4</sup>

21세기 미국의 비평계는 세계에 대한 세즈윅의 이 같은 회의주의를 공유하고 있다. 텍스트가 구조나 역사 같은 컨텍스트를 매개하는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대안과 저항의 모델을 제시하는 대신, 크고 작은 감정들 및 실패와 보류의 순간들을 읽어내면서 이 세계를 견디고 살아 나가는 양식들을 회복적으로 상상하는 이 같은 경향은 셀저(Mark Seltzer)의 표현처럼 일종의 비평적 “마이너리티 리포트”이자 “정치적 미니멀리즘”이라 부를 수 있다.<sup>5</sup> 텍스트의 이면보다 “표면”<sup>6</sup> 이데올로기보다 “정동”을 통해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이러한 변화는 펠스키(Rita Felski)와 앵커(Elizabeth Anker)에게는 비판에서 포스트비판<sup>7</sup>으로 이해되고, 엘리엇(Jane Elliot)과 하킨즈(Gillian Harkins)에게는 징후적 독해에서 포스트징후적 독해로의 전환,<sup>8</sup> 셀저(Mark Seltzer)에게는 “점진주의로의 전회”로 명명된다.<sup>9</sup>

회복적 독해는 세계를 아는 일과 바꾸는 일 모두가 일종의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세계인식과 감각 속에서 희미한 희망을 끌어안는 일이다. “희망은 종종 우리를 산산조각 내고 때로는 그것을 경험한다는 것 자체가 외상적인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희망은 회복적 위치의 독자가 마주치거나 창조한 파편들과 부분-대상들을 모아 정리하려 애쓰는 에너지들 속에 존재한

4 Sedgwick (2003), p. 138.

5 Mark Seltzer (2016), *The Official World*, Durham: Duke UP, pp.165-166.

6 Stephen Best and Sharon Marcus (2009), “Surface Reading: An Introduction”, *Representations* 108, pp.1-21.

7 Elizabeth S. Anker and Rita Felski (2017), *Critique and Postcritique*, Durham: Duke UP.

8 Jane Elliot and Gillian Harkins (2013), “Introduction: Genres of Neoliberalism”, *Social Text* 31(2), pp. 1-17.

9 Seltzer (2016), pp. 165-166.

다”<sup>10</sup>라고 세즈윅은 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이 글의 서두에서 언급한 당고가 20세기 중반 이후 미국 미니멀리즘 계보학을 바라보는 시선은 회복적 독해의 회의주의적 시대인식뿐 아니라 희미한 희망의 제스처까지도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는 큰 것을 통제하거나 수리할 수 없을 때 작은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며 살아 나간다.

그러나 스투얼케(Patricia Stuelke)를 비롯한 이들이 지적하듯, 회복적 독해의 언어들은 그 자체로 역사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 학계의 회복적 독해는 분명 에이즈 위기,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벌이는 끝없는 전쟁, 더 이상 폭로는 필요없지만 끈질기게 지속되는 인종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폭력과 같은 동시대 역사에 대한 반응이다. 하지만 회복적 독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회복이라는 언어가 미국의 국가주의적 이해를 위해 동원되어온 역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이고, 자아의 유지와 보존이라는 회복적 삶의 기치가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정동적 에피스테메와 연동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유하지 않는다. 자신의 역사성에 대해 의외로 둔감한 회복적 독해는 “역사로부터의 유예(respite) 안에서 안도(relief)를 탐색하려는 움직임”<sup>11</sup>이기도 하다. 스투얼케는 회복적 독해가 신자유주의의 조건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역사화되어야 한다는 레버(Dierdra Reber),<sup>12</sup> 엘리엇과 하킨즈의 제안에 동의하면서, 국가, 자본주의, 대학이 회복이라는 저항적 사회운동의 언어를 전유하면서 전쟁과 불평등을 지속하는 방식을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회복적 독해라는 비평적 미니멀리즘을 역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스투얼케를 비롯한 이들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회복이라는

10 Sedgwick (2003), p. 146

11 Patricia Rachael Stuelke (2021), *The Ruse of Repair: US Neoliberal Empire and the Turn from Critique*, Durham: Duke UP, p. 9.

12 Dierdra Reber (2016), *Coming to Our Senses: Affect and Order of Things for Global Culture*, New York: Columbia UP.

언어가 미니멀리즘 스타일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동기로부터 출발했다. 21세기 비평의 화두인 회복적 독해, 포스트비판, 비평적 미니멀리즘이 비평이라는 지적 실천의 규모와 확장성을 축소하면서 역사로부터의 유예 안에서 안도를 탐색하는 정동적 앎을 추구한다면, 가깝게는 20세기 중반 멀게는 20세기 초반부터 자체의 미학적 역사를 구축해온 스타일로서 미니멀리즘은 비평적 미니멀리즘에 어떠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을까? 주지하듯, 미니멀리즘의 역사는 문학뿐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에 걸쳐 있고, 문학연구 내에서도 다양한 시대, 장르, 작가를 넘나든다. 문학으로 범위를 한정하더라도 미니멀리즘은 작가 연구, 단편과 장편의 미니멀리즘 비교 연구, 형식적 변주 연구(하이쿠, 트위터터 등), 국가문학 전통 내 계보학 혹은 국가문학 간 비교 연구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글은 종적으로 횡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이러한 연구의 범위를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으로 한정하고, 당대 미니멀리즘의 보수주의가 타협과 회복의 논리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짚어본다. 이 글의 전반부에서는 1970-8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 문학이 정부, 대학, 대중과 같은 여러 사회적 장력들과의 역동 속에서 타협의 미학으로 탄생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타협에는 축소와 배제라는 미니멀리즘의 원칙이 작동한다. 간소한 플롯, 간단한 문장, 복잡하지 않은 인물, 제한된 정치적 전망으로 짜인 미니멀리즘 문학의 공간 내부에만 집중하면, 당고처럼 큰 것을 수리할 수 없을 때 작은 공간 속에서 해독과 회복을 추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시대 미니멀리즘에 담긴 회복의 논리를 베트남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조명해보면 미니멀리즘 문학의 픽션 공간 구축을 위해 행해지는 배제와 음소거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고, 간소화된 그 공간에 드리우는 불안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다. 당대 미니멀리즘을 상징하는 카버(Raymond Carver)의 단편들은 이러한 논의를 예증하는 작은 방들이다. 카버가 이 시기 미니멀리즘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이는 그의 문학이 보여준 탁월함에 대한 비평적 합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단편들은 당

대 미니멀리즘 문학 공간 구축에 작동하는 회복과 불안의 역동을 메타적으로 은유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이 글의 결론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회복적 공간 구축과 그것을 허무는 불안의 분열적 운동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논하면서, 1970-8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 문학이 21세기 비평적 미니멀리즘에 건넬 수 있는 조언을 생각해본다.

## 2.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 타협과 회복의 미학

미니멀리즘은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중요한 흐름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하층계급의 일상을 간결하고 정제된 문체로 그려내는 특징을 갖는다고 이해된다. 이 시기 미니멀리즘 문학의 상징처럼 인식되는 카버(Raymond Carver)를 위시해, 바셀미(Frederick Barthelme), 비티(Ann Beattie), 메이슨(Bobbie Ann Mason), 험펠(Amy Hempel), 로비슨(Mary Robison), 울프(Tobias Wolff) 등이 이끌었던 미니멀리즘은 핀천(Thomas Pynchon), 바스(John Barth) 등 동시대 포스트모더니즘 작가들과 여러 면에서 대비되었다.

미니멀리즘의 부상은 분명 새로운 것이었다. 1983년 『그랜타』의 에디터였던 뷰퍼드(Bill Buford)는 미니멀리즘이 “통상적 미국문학이라 여겨지던 것들과 분명히 다르다”며, 메일러(Norman Mailer)나 벨로우(Saul Bellow)처럼 영웅적이거나 서사시적이지 않고, 핀천이나 바스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자의식적으로 실험적이지 않으며, 리얼리즘 전통과 가까우면서도 그 이전의 리얼리즘을 장식적이고 바로크적인 것으로 만드는 면이 있다고 쓴다. 뷰퍼드가 볼 때 “일일연속극을 보고 값싼 로맨스 소설을 읽거나 컨트리 음악을 듣는 하층계급의 이야기”를 “비장식적인” 스타일로 그려내는 1970-80년대

미니멀리즘 문학<sup>13</sup>은 헤밍웨이(Ernest Hemingway)나 베케트(Samuel Beckett)와도 달랐다. 헤밍웨이와 베케트의 미니멀리즘은 대학의 강의실을 경유해야만 읽을 수 있는 상위문화였다. 그러나 1970-80년대의 미니멀리즘은 가독성과 접근성 면에서 가히 대중적이었다. 이 텍스트들을 이해하기 위해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독법이 필요하지 않았다. 바스가 1986년 『뉴욕 타임스 북리뷰』에 쓴 글을 보면, 당시 미니멀리즘 문학은 “간결하고, 우회적이고, 리얼리즘이면서 하이퍼리얼리즘이고, 플롯은 가볍고, 외향적이고, 쿨한 표면을 가진 픽션”으로 이해되었고, “K-마트 리얼리즘”, “다이어트-웹시 미니멀리즘”이라 불리기도 했다.<sup>14</sup>

당대 비평들은 대체로 미니멀리즘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다이어트-웹시 리얼리즘이라는 닉네임에서 암시되듯, 미니멀리즘은 리얼리즘이지만 사회비판적 성격은 빠져있는 허깨비 리얼리즘이자 대중의 주의집중력 감소라는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퇴보한 리얼리즘으로 인식됐다. 벨(Madison Bell)은 미니멀리즘 작가들이 일상 이상을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했다.<sup>15</sup> 레빗(David Leavitt)은 “주의집중력이 짧아지고 [...] 가족이 해체되는 시기에 성장한”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단편에 한정했고, 어찌면 단편은 그런 이유로 “그 시대에 가장 적절한 형식”이라고 일축한다.<sup>16</sup> 바스 역시 미니멀리즘은 대중의 “전반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의 퇴보”, “미국 광고

13 Margaret Doherty (2015), “State-Funded Fiction: Minimalism National Memory, and the Return to Realism in the Post-Postmodern Age”, *American Literary History* 27(1), p. 87에서 재인용.

14 John Barth (1986), “A Few Words About Minimalism”, *The New York Times*, 28. Dec.,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6/12/28/books/a-few-words-about-minimalism.html>

15 Madison Bell (1986), “Less is Less: The Dwindling American Short Story”, *Harper's*, April, pp. 64-69.

16 David Leavitt (1985), “New Voices and Old Values”, *The New York Times*, 12 May,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5/05/12/books/new-voices-and-old-values.html>



의 과장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탄생했다고 진단한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이 정부, 대학, 전쟁, 대중, 작가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부터 중층결정된 결과물이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합의한다. 미니멀리즘은 그 어떤 문학적 사조보다도 작가들이 정부와 학교라는 공적 제도와 다양한 교섭을 통해 구축한 “타협의 미학”(compromise aesthetic)이었다.<sup>17</sup> 도허티(Margaret Doherty)는 미니멀리즘이 미국 정부의 예술 지원사업과 가졌던 긴밀한 관계를 살피면서 타협의 미학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냉전이 한창이었던 1967년에 시작된 정부예술기금(NEA: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작가 지원사업은 초기에는 여러모로 비공개적이었는데, 소련처럼 예술에 대한 검열을 시행하고 프로파간다를 은밀히 양산한다는 의심을 차단하고자 했던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르러 NEA는 민주주의적이고 대중적인 동시에 예술적 선도성을 포용하는 기관으로 스스로를 공표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한다. 도허티는 1970-80년대에 걸친 NEA의 작가 지원사업의 특정한 방향을 이렇게 분석한다. “밀도 높은 형식과 정치적 반대를 담은 문학, 즉 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작품들 대신, 관습적 형식과 대중적 주제를 갖춰 평범한 독자에게 호소하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원만하고 통합적인 작품을 주로 지원했다”(80). 이러한 환경에서 탄생한 미니멀리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춰 “접근성 및 대중성뿐 아니라 그에 균형을 맞출 만한 예술적 역량도 보여주었던” 타협의 미학이었다.<sup>18</sup>

그러나 무엇보다 1970-80년대 미니멀리즘의 제도적 인큐베이터는 대학의 문예창작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맥걸(Mark McGurl)의 『프로그램 시대: 전후 픽션과 문예창작의 부상』은 1945년 이후의 미국문학사를

17 Doherty (2015), pp. 87-89.

18 NEA 지원금을 받은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다음과 같다. 바실미 1979년, 카버 1980년, 포드 1980년과 1986년, 메이슨 1983년, 울프 1985년.

대학의 문예창작 프로그램과의 관계 속에서 재편하면서, 1970-80년대 미니멀리즘의 탄생 역시 그 맥락에서 조명한다. 1970-80년대 미국은 고등교육 팽창의 시대였다. 1940년대에는 학령 인구의 10%만이 대학에 진학했지만, 1980년대에는 20대의 50% 정도가 대학생이 된다. 여기에는 고등교육 확대라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 방향과 실행이 있었다. GI 법안으로 더 잘 알려진 1944년의 군인 재적응 법(Servicemen's Readjustment Act)이 제2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고등교육 확대 기획의 포문을 열었다면, 1965년의 고등교육법(Higher Education Act)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막대한 규모의 주 정부 예산을 투자해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범위와 규모를 확장한다.<sup>19</sup> 문예창작 프로그램은 이렇게 확대된 대학교육 커리큘럼의 하나였다. 입학과 졸업 사이의 정해진 시간 안에 졸업작품이라는 형식에 담길 수 있는 글을 생산할 수 있게 한다는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교육적 목표는 당시 스키너식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인 입력과 산출의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었다. 단편이라는 형식, 간단한 문장, 간소한 인물 및 플롯, 제한된 정치적 전망, 일상적이고 사적인 배경과 같은 당대 미니멀리즘의 특징은 이러한 제도적 제한 안에서 현실적으로 선택되고 구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카버를 비롯한 작가들의 글을 가차 없이 교열하고 편집했던 리시(Gordon Lish)가 당대 문학 장의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은 문예창작 프로그램과 결속한 미니멀리즘 문학의 독특한 제도성을 이해할 수 있는 예시이다.<sup>20</sup>

1970-80년대 미국문학 미니멀리즘의 보수주의는 정부 및 대학 제도와 의 이 같은 교섭과 타협에서 왔다. 맥걸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지적하듯, 미니멀리즘은 몇몇 예외에도 불구하고 중하층 백인문화의 “근본적 보수주의”, 즉 “침울하고 의심이 많고 자기-중심적인 백색 소음” 속에서 변화를 음소

19 Mark McGurl (2009), *The Program Era: Postwar Fiction and the Rise of Creative Writing*. Cambridge: Harvard UP, p. 282.

20 리시와 미니멀리즘의 관계에 대해서는 McGurl (2009), pp. 288-293.

거하는 보수주의를 지닌다. 이러한 흐름은 당대 미국문학의 또 다른 주요한 흐름인 포스트모더니즘과 소수민족문학이 전쟁, 자본주의, 노예제, 이민과 같은 큰 규모의 역사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판적 개입을 수행한다는 점과 대별된다.<sup>21</sup>

이 같은 배경에서 볼 때 베트남 전쟁이 미니멀리즘 문학과 맺는 밀접한 관계는 특별히 조명할 가치가 있다. 미니멀리즘 문학의 주요한 배경인 일상의 삶 대신 전쟁이 작품의 중심 소재가 되지만, 미니멀리즘 고유의 제도적 교섭을 통한 정치적 봉쇄로 역사적 비판을 탈각하기 때문이다. 베넷(Eric Bennett)이 지적하듯 이는 미국 냉전 문화정치학의 특징이기도 한바, 베트남 전쟁 이후 미니멀리즘은 공황시기 리얼리즘 전통의 마르크스주의적 사회 비판을 폐기하는 가운데, 포드주의적 국가 기관과 대학이 부흥시킨 휴머니즘적 회복을 지향하는 흐름이었다.<sup>22</sup> 바꿔 말하면, 이 시기 미니멀리즘 문학은 인종, 제국, 이념과 같은 정치적 쟁점들의 용광로였던 베트남 전쟁을 작품 안에 들여오지만, 백인중심적 보수주의의 차가움 속에서 그 뜨거운 정치적 소음을 음소거시키고 참전군인들의 휴머니즘적 온기만을 남긴다.

참전군인은 미국 미니멀리즘 문학의 역사에서 여러모로 상징적 존재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문을 연 문예창작 프로그램에서 참전군인은 작가지망생이었고 훗날 글쓰기 선생이 되기도 했으며, 작품의 생산자인 동시에 중요한 등장인물이었다. 그 배경에는 앞서 지적했던 대학교육의 확대와 참전군인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이 있다. 스테그너(Wallace Stegner)는 『픽션을 가르치고 쓰는 것에 관하여』(2002)에서 1945년 스탠포드 대학 문예창작과에서 보냈던 첫 학기를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GI 학생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평범한 대학생들보다 성숙했고

21 McGurl (2009), p. 314. 맥길은 이를 각각 테크노모더니즘(technomodernism)과 고급문화다원주의(high cultural pluralism)로 부른다.

22 Eric Bennett (2015), *Workshops of Empire: Stegner, Engle, and American Creative Writing During the Cold War*, Iowa City: U of Iowa P.

쓸감이 훨씬 많았으며 참전으로 잃어버린 3-4년의 시간을 만회하려는 긴급함의 감각이 있었다.<sup>23</sup> 그들에게 헤밍웨이는 빛나는 선례였다. 참전군인들은 전쟁 트라우마를 정제된 문학의 언어로 번역하고자 열망했고, 헤밍웨이는 이를 탁월하게 완수한 문학적 이데아였다.

베트남 전쟁과 미니멀리즘의 관계를 제2차 세계대전의 맥락과 차별화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회복 담론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니멀리즘이 헤밍웨이를 꿈꿨던 참전군인들의 미학적 목표이자 단편이라는 장르를 지시하는 용어라면, 베트남 전쟁 이후 미니멀리즘은 회복이라는 정치적 수사와의 제휴 속에서 반제국주의를 비롯한 정치적 논의를 차단하는 미학적 봉쇄로부터 탄생한다.<sup>24</sup> 이때 미니멀리즘은 형식의 차원뿐 아니라 내용적 차원에서의 축소, 즉 정치적 음소거와 밀접한 용어가 된다. 맥걸의 미니멀리즘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베트남 전쟁의 의미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이는 스투얼케다. 그녀는 전쟁과 미니멀리즘의 관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베트남 전쟁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서도, 맥걸과 달리 두 시기의 차이를 변별할 때라야 미니멀리즘의 보수주의를 회복 담론과의 관계 속에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스투얼케에 따르면, 베트남 전쟁 이후 참전군인은 미니멀리즘 문학 속에서 등장인물인 동시에 중요한 문학적 시점으로 기능한다. 이들의 전쟁 트라우마가 초래한 시간 감각의 혼란과 탈구는 포스트-포디즘적 자본주의의 획일적 시간과 자기-중심적 회복을 지향하는 제국주의적 시간 모두를 동요하게 할 잠재성을 가졌지만, 그 비판적 힘은 참전군인의 희생자성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가운데 무력화된다. 결국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은 “참전군인을 반전운동의 정치학과 미학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고, 이는 곧 “참전군인이 비

23 Stuelke (2021), p. 154에서 재인용.

24 미니멀리즘 문학에 있어 참전군인이 점유했던 상징적 역할에 대해서는 Stuelke (2021), pp. 149-188 참조.

판의 형상이 아니라 회복의 형상으로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5</sup>

### 3. 레이먼드 카버의 미니멀리즘: 회복과 불안의 스타일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1970-80년대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은 주의집중력이 짧아지는 대중, 대학 교육의 팽창, 문예창작 프로그램의 부상, 냉전 문화정치학, 베트남 전쟁 이후 회복 담론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장력과 교섭하며 구성된 타협의 미학이다. 20세기 초반의 미니멀리즘이 헤밍웨이의 스타일로 각인된다면, 20세기 후반의 미니멀리즘은 카버의 단편으로 대표되고 세공된다. 그는 시라큐스 대학 문예창작 프로그램에서 수학하고 훗날 그곳에서 가르치다가 50세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포드(Richard Ford)의 말처럼 “전후 미국의 규준적 방식대로 일종의 교습법(pedagogy)을 통해 향상을 이루고자” 했다.<sup>26</sup> 카버에게 창작은 근면, 성실, 몰두가 수반되는 신성한 남성적 노동이었고, 글쓰기는 훈련과 연마를 통해 향상되고 단련될 수 있는 역량이었다. 카버가 이 시기 미니멀리즘을 상징한다고 할 때, 이는 그의 문학이 보여준 탁월함에 대한 비평적 합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의 단편들은 당대 미니멀리즘적 문학 공간 구축에 작동하는 회복과 불안의 역동을 메타적으로 은유하기 때문에 상징적이다.

카버의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백인 중하층 계급의 출구 없는 일상과 위태로운 가정성이다. 그의 인물들은 자기-중심적인 폐소공포증적 공간에서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간다. 카버가 이야기의 규모와 정치를 축소하며 구축하는 미니멀리즘적 문학 공간은 지극히 하양다. 그의 단편에 유색인종은 거의 등장하지 않으며, 베트남 전쟁은 배경으로나 소재로나

25 Stuelke (2021), p. 153

26 McGurl (2009), p. 281에서 재인용.

극히 제한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둘 때,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과 「비타민」(Vitamins)은 각각 흑인과 베트남 군인의 존재가 미약하지만 의미심장하게 이야기의 중심을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두 단편에는 당대 인종 문제와 베트남 전쟁이 음소거의 모티프 속에서 차단되면서 백인 중하층 가정의 위태로운 토대가 회복되는 과정이 그려진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이 미니멀리즘의 국내적 백인중심성을 은유한다면, 「비타민」은 미니멀리즘의 국제적 미국중심주의가 구성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무커르지(Bharati Mukherjee)는 1988년 『뉴욕 타임스 북리뷰』에 발표한 「이민자 문학: 당신의 맥시멀리스트를 우리에게!»에서 미국 미니멀리즘의 미국중심주의를 토착주의(nativism)로 명명한다. 무커르지가 볼 때, 당대 미니멀리즘 문학은 공동의 두려움에 대한 코드화된 반응이다. 나이들어감, 중년의 위기, 이혼, 무의미한 직장과 같은 사회적 불안의 요소들을 건조하게 명명할 뿐, 직면하지 않는다. 무커르지에게 이러한 미국의 미니멀리즘은 “토착주의”(nativism)다. “이미 정착한 이들에게만 속삭이며 말하기 때문”이다. “이주자”인 그녀는 “미니멀리즘의 냉기”를 느낄 수 있다. “미니멀리즘은 할 이야기가 너무나 많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다.<sup>27</sup>

카버의 「비타민」에는 무커르지가 언급한 미니멀리즘의 토착주의가 베트남 전쟁과의 관련 속에서 드러난다. 베트남 전쟁은 미니멀리즘 문학의 비가시적 중심이다. 1986년 바스가 『뉴욕 타임스 북리뷰』에 썼듯, 당대 미니멀리즘에 공통된 것은 “문자 그대로도 비유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트라우마인 베트남 전쟁이라는 국가적 숙취”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는 혹은 “말할 수 없다”는 정조이다.<sup>28</sup> 「비타민」은 카버 비평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

27 Bharati Mukherjee (1988), “Immigrant Writing: Give Us Your Maximalist!” *The New York Times*, 28, Aug,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8/08/28/books/immigrant-writing-give-us-your-maximalists.html>

28 John Barth (1986), “A Few Words About Minimalism”, *The New York Times*, 28, Dec.,

했고, 이 작품을 베트남 전쟁과의 관련성 속에서 살펴본 비평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드러나는 반복과 언어적 전치에 주목해보면, 미니멀리즘적 문학의 픽션 공간 구축을 위해 행해지는 배제와 음소거에 드러나는 베트남 전쟁의 그림자를 읽을 수 있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은 인종적 소음을 차단해 안전하고 통제가능한 미니멀리즘적 문학 공간을 구축하는 과정을 은유하는 이야기다. 주인공 램프는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집을 나가 술을 마시고 카드 게임을 한다. 술집을 나와 집에 오는 길에 그는 물을 보고 싶은 마음에 부닷가에 간다. 이때 그가 떠올리는 인물은 이야기의 서두에 잠깐 언급되는 영문학자 맥스웰 박사다. 램프는 자신과 같은 상황이라면 맥스웰 박사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물가에 우아하게 앉아있었을”<sup>29</sup> 그의 모습을 상상한다. 이때 느닷없이 나타난 한 흑인 남성은 “왜 발을 밟느냐”며 램프를 폭행한다.<sup>30</sup> 만신창이가 되어 집에 온 그는 욕실로 향한다. 문밖에서 부인이 관찰하며 욕실문을 열어보라 재차 요구하자 램프는 제목 그대로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이라고 말한다.

He said, “Go away.”

She said, “Ralph, open up, please.”

He said,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He heard her waiting at the door, he saw the knob turn again, and then he could hear her moving around the kitchen, getting the children breakfast, trying to answer their questions.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a long time. He made faces at himself. He tried many expressions.

---

Web. 2024. 8. 8.

29 Raymond Carver (1976),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New York: Vintage, p. 178.

30 Carver (1976), p. 178.

Then he gave it up. He turned away from the mirror and sat down on the edge of the bathtub, began unlacing his shoes. He sat there with a hose in his hand and looked at the clipper ships making their way across the wide blue sea of the plastic shower curtain. He thought of the little black coaches in the tablecloth and almost cried out *Stop!* He unbuttoned his shirt, leaned over the bathtub with a sigh, and pressed the plug into the drain. He ran hot water, and presently steam rose.<sup>31</sup>

욕실 문을 열라는 부인의 말을 외면하고 욕조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랠프의 모습은 조금 전 부드가 끝에 앉아 부인의 외도를 생각하던 장면과 겹친다. 그는 지금 부드가에서 만난 흑인 남성에게 맞은 상처를 닦아내려고 물을 욕조에 받고 있다. 표면적으로 그가 차단하고 싶은 것은 아침을 시작하는 집안의 소리들이다. 부인이 “부엌에서 움직이며 아이들 아침을 챙기는 소리, 아이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소리들”. 그러나 다른 한편 그가 “그만!”(*Stop!*) 떨쳐내고자 하는 것은 식탁 근처를 돌아다니는 검은 바퀴벌레가 연상시키는 부드가의 흑인 남성이라는 인종적 타자다. 말하자면, 그는 흑인 남자와의 폭력적 신체 접촉의 흔적(상처)을 씻어내고 있다. 그와의 느닷없는 폭력적 형태의 신체적 대면은 또한 섹슈얼리티의 트라우마적 깨어남과 의외의 열림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퀴어적이기도 하다. 흑인 남성에게 맞은 그 부드가의 경험은 그러므로 인종적인 동시에 성적인 침범이자 오염이다. 이를 해독하는 욕실에서의 정화 의식을 경유해서야 이 단편의 가정성은(비록 위태로운 가정성이라 할지라도) 회복된다. 이어지는 마지막 장면에서 랠프는 목욕 후 침대에 누워 그를 가까이 만지며 다가오는 부인을 거부하지 않는다. 부인의 외도를 알게 되면서 시작해 부부의 애정 없는 스킨십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는 인종적·성적 타자성을 음소거하고 해독할 때라야 가능한

31 Carver (1976), p. 183. 강조는 인용자.



위태로운 백인 가정성에 관한 우화다.

한편, 부딪가에서 부인의 외도에 대해 홀로 생각하던 랠프가 떠올린 인물이 영문학자 맥스웰 박사라는 점은 당고의 지적처럼 미니멀리즘의 문화적 공간 구축에 작동하는 해독적 회복의 논리를 생각해보게 한다. 당고는 흑인 남성을 마주치기 전 랠프가 떠올리는 영문학자 맥스웰 박사의 품위 (“[나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우아하게 앉아있을 것”)는 그가 수호하는 언어의 질서를 상징한다고 본다. 당고에 따르면, 맥스웰 박사가 가진 문화적 지적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랠프는 부딪가에 앉아 그의 태도와 생각을 상상할 수 있을 뿐이다. 상상적 동일시의 순간 흑인 남성이 구사하는 부적절한 ‘비표준 영어’가 랠프를 공격했지만[“이봐”(man), “저기”(baby)], 부인이 집으로 돌아온 랠프에게 건네는 애정 어린 표준어[“자기야”(darling), “랄프”(Ralph)]는 오염을 해독하며 인종적 소음을 차단한다.<sup>32</sup> 이렇게 축소된 카버의 미니멀리즘적 문학 공간은 맥결이 지적한 미니멀리즘의 보수주의, 즉 인종적·성적 잡음을 차단하면서 백인 하층민의 “침울하고 자기-중심적인 백색 소음”<sup>33</sup>으로만 폐쇄적 공간을 만드는 보수주의를 예증한다.

「비타민」에는 여느 카버의 소설처럼 위태로운 한 백인 중하층 가정이 등장한다. 패티(Patti)는 비타민 방문 판매원이다. 그녀의 남편은 병원에서 이런저런 일을 맡아 처리하는 잡역부이다. 직업을 통해 자아-존중감을 느끼고 싶은 패티는 영업일에 회의감을 느낀다. 직업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남편은 퇴근 후 간호사들과 술을 마시러 다니고, 패티의 동료와 집 안 밖에서 외도를 한다. 삶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없고 아내의 고민을 경청하지도 않는 남편의 시선을 따라 3인칭으로 진행되는 서사는 이 부부가 처한 출구 없는 상황을 더 생생하게 만든다.

출구 없음이라는 갑갑한 감각을 더하는 것은 이 짧은 이야기 속 여러

32 Dango (2022), pp. 79-83.

33 McGurl (2009), p. 314.

차원에서 진행되는 반복이다. 패티의 동료인 실라(Sheila)와 도나(Donna)는 각각 서사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패티 부부의 이성애적 가정성을 위협한다. 패티, 실라, 도나는 패티가 이끄는 비타민 판매팀의 일원이다. 이야기의 전반부, 패티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실라는 패티의 남편에게 자신이 패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얘기한다. 패티의 남편은 집의 한구석에서 도나와 포옹을 한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실라는 술잔을 든 채 테이블로 고꾸라져 손가락이 부러진다. 실라만큼이나 거하게 취한 패티의 남편이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서로 실랑이를 벌인다. 단호하게 거절하며 홀로 길을 나선 실라를 “그날 이후 본 사람은 없었다”고 패티의 남편이자 서술자는 말한다. 실라는 포틀랜드로 떠났다. 이야기의 후반부, 패티의 남편과 도나는 흑인들이 운영하는 오프-브로드웨이 술집에서 데이트를 한다. 이때 베트남 전쟁에서 막 돌아온 넬슨(Nelson)이라는 흑인 군인이 두 사람의 불륜을 조롱하며 자신이 전쟁터에서 가지고 온 베트남 군인의 잘린 귀를 보여준다. 위협을 느낀 두 남녀는 술집을 나오고, 저녁 근무를 위해 병원에 출근하는 패티의 남편 차에 같이 탄다. 패티의 남편은 도나에 대한 잠깐의 욕망이 완전히 식었다. 이날이 도나와의 단 한 번의 데이트였다고, 패티의 남편-서술자는 회상한다. “어디로 갈 거야?” 패티의 남편이 묻자 도나는 “아마도 포틀랜드로 갈 거 같아.”라고 대답한다.

이 짧은 이야기를 가로지르는 반복의 층위들은 이렇다. 실라와 도나는 이야기의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각각 포틀랜드로 떠난다. 두 여자는 전반부 패티 집에서의 크리스마스 파티와 후반부 오프-브로드웨이 술집에서 각각 패티 부부의 가정성을 위협한다. 그들이 이야기에서 사라질 때 차와 병원의 이미지가 모두 등장한다. 전반부 실라의 부러진 손가락과 후반부 베트남 군인의 잘린 귀라는 훼손된 신체가 짝을 이룬다. 이처럼 실라와 도나라는 두 여자를 축으로 차이 속 반복의 짝을 이루는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패티의 비타민 꿈이 놓여 있다. 비타민이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에 대한 생각이 그녀를 떠나기 않기 때문에 패티는 자면서도 비타민 꿈을 꾸다. 그

래서 그녀에게는 쉽지가 않다. 그녀는 소리친다. “나는 안도할 수가 없어. 내겐 안도가 없다고!” 가가호호 방문 비타민 영업이라는 철 지난 자본주의 주변부 노동에 강박적으로 압박을 느끼는 패티의 비타민 꿈은 그 서사 앞뒤를 둘러싼 실라와 도나 이야기 속 반복들로 인해 더 폐소공포증적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남편은 패티의 말에 제대로 응대하지도 공감하지도 않는다. 패티의 말끝마다 그는 아내의 여자 동료들에 대해 묻는다. “팸은 어떻게 지내?” “도나는 요즘 뭐해?” 결국 패티는 외친다. “내 말 못 들었어?” 여기서 환기되는 패티 남편의 둔감한 청력은 물론 그의 신체적 장애가 아니라 감정적 무능력을 지시한다. 술에 취한 패티의 남편은 실라의 부러진 손가락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실라의 부상은 패티의 남편-서술자가 그녀를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주장과 시비에 가까운 실랑이를 벌이는 구실이 될 뿐이다.

그러나 꿈의 해석이 언제나 이미지들의 연쇄뿐 아니라 소리 사이의 연결을 통해서도 이뤄진다는 프로이트의 말을 상기할 때, 남편의 둔감한 청력에 대한 비난(“내 말 못 들었어?”)으로 끝나는 패티의 비타민(Vitamin) 꿈 이야기는 베트남(Vietnam)에서 온 잘린 귀가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후반부와 의미심장하게 연결된다. ‘비타민’과 ‘베트남’의 소리의 유사성은 귀라는 공통의 모티프 속에서 공명하며 베트남이라는 형상을 그림자처럼 어른거리게 만든다. 전쟁터에서 잘라져 벨슨의 펜던트에 “말린 버섯”처럼 담긴 베트남 군인의 귀는 부인의 말들을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듣지 못하는 남편의 둔감한 감정적 청해력에 대한 사물적 비유이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보면, 잘라져 펜던트의 장신구가 된 베트남 병사의 훼손된 신체는 누군가의 실제 귀였던 그것(the thing)이 백인 주인공의 자기중심성을 비유하는 사물(the object)로 동원되고 있다는 문학적 전유의 섬뜩함을 또한 전달한다.

Nelson grinned. “I finished talking,” he said.

He found what he'd been feeling for. It was a silver cigarette case. He opened it up. I looked at the ear inside. It sat on a bed of cotton. It looked

like a dried mushroom. But it was a real ear, and it was hooked up to a key chain. [...]

He looked around the booth, He **looked at** Nelson's wallet on the table and at the open cigarette case next to the wallet. He saw the ear.

"That a real ear?" Khaki said.

Benny said, "It is. **Show him** that ear, Nelson. **Nelson just stepped off the plane from Nam with this ear.** This ear has traveled halfway around the world to be on this table tonight. Nelson, **show him,**" Benny said.

Nelson picked up the case and handed it to Khaki.

Khaki examined the ear. He took up the chain and dangled the ear in front of his face. He **looked at** it. [...]

"**I took it off one of them gooks,**" Nelson said. "He couldn't hear nothing with it no more. **I wanted me a keepsake.**" [...]

"**Nelson just got off the plane from Nam this morning,**" I heard Benny say.<sup>34</sup>

이 장면에서 도드라지는 것은 반복이다. 흑인 병사 넬슨은 "이제 막 베트남에서 돌아왔다"는 말로 거듭 소개된다. 그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전리품은 "말린 버섯"이 되어 펜던트 안에 갇힌 베트남 병사의 "진짜 귀"다. 사물이 된 귀는 이날 저녁 오프-브로드웨이 바에 모인 미국인들이 둘러가며 구경하는 물건이다. "본다"(look)는 동사는 넬슨이 "이제 막 베트남에서 돌아왔다"는 말만큼이나 위의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이제 막 베트남에서 돌아온" 넬슨이 가져온 물건을 거듭 "보는" 중에도 베트남은 보이지 않는다. 술집에 모인 이들이 끄적해하면서도 집단적으로 향유하는 이 외설적 페티시는 미국 대중문화에서 무수히 양산되어 스펙터클로 소비되

34 Raymond Carver (1983), "Vitamins", *Cathedral*, New York: Vintage. p. 97.

던 유령 이미지-로서의-베트남이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은 넬슨이 가지고 다니는 베트남 병사의 잘린 귀라는 죽은 신체, 사물이 된 신체 안에 갇혀 있다.

「비타민」과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을 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둘 모두 인종적·성적·제국적 타자를 배제하고 음소거함으로써 가까스로 구축되는 위태로운 백인 중하층 가정성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을 회복의 관점이 아닌 배제와 음소거의 차원에서 살펴보면, 미니멀리즘 문학 공간에 드리우는 불안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다. 이 불안은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타자의 그림자로부터 온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에서 램프는 흑인 남성과의 폭력적 신체 접촉의 흔적을 씻어내고 침대에 누워 그를 가까이 만지며 다가오는 부인을 거부하지 않는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은 표면적으로는 램프가 부인에게 하는 말이고 그 자체로 이 부부의 위태로운 가정성을 지시하지만, 이 둘의 신체적 거리가 가까스로 밀접해지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임시방편적 봉합에 가까운 그 결합을 위해 차단되어야 할 인종적·성적 소음에 대한 불안의 언어로 반향된다. 한편 「비타민」에서 패티의 남편은 아예 부인의 말을 듣지 못한다/않는다. 「제발 조용히 좀 해줄래, 제발?」의 마지막에서 램프는 침대에 누워 다가오는 아내를 막지 않지만, 「비타민」속 패티의 남편은 또 다시 비타민 꿈을 꾸 아내를 외면하고 술자리에서의 불쾌한 기억 때문에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진다. 패티의 ‘비타민’ 꿈과 ‘베트남’이 부부의 불통과 잘린 귀라는 모티프의 반복 속에서 소리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타민」의 가정성은 더 위태롭고 불안의 기운은 더 강력하다. “보다”라는 동사의 반복 속에서 그 부재와 비가시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베트남은 잘라진 귀의 형태로 펜던트에 “말린 버섯”처럼 놓여 있다. 이 타자에게는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서 베트남은 애초부터 소음을 차단할 필요가 없는 죽은 사물이기 때문이다.

#### 4. 회복의 역사화, 비평의 스타일링

지금까지 1970-80년대 미국 미니멀리즘 문학의 보수주의가 정부, 대학, 대중과 같은 여러 사회적 장력들과의 역동 속에서 타협과 회복의 논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카버의 두 단편이 은유하는 이 시대 미국문학 미니멀리즘의 음소거와 배제성은 결국 국내적 백인 중심성과 국제적 미국중심주의를 회복하는 탈역사주의적 시간적 정지로 귀결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버를 위시한 미국문학의 미니멀리즘은 최근의 포스트비판과 비평적 미니멀리즘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포스트비판적 회복 담론은 자체의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동시대 억압은 규정할 수 없다는 불가지론에 기대거나 회복이라는 언어가 미국의 국가주의적 이해를 위해 동원되어온 역사에 대해서는 주의를 덜 기울인다. 그러나 자신의 이론적 토대인 회복 담론을 물화하지 않고 역사화해야 비평적 미니멀리즘은 1970-80년대 미국문학 미니멀리즘의 미국중심적 토착주의와 탈역사주의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손택(Susan Sontag)은 「스타일에 관하여」에서 예술의 가치를 스타일에서 찾는다. 예술이 촉발하는 것은 개념적 지식이 아니라 어떤 “감흥”이고, 달리 말하면 “매혹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판단과 관여의 상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어떤 삶의 스타일을 경험하는 것이다”.<sup>35</sup> 창작자는 세계에 대한 자신의 감각과 앎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떠한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감각적 각인”을 통해 스타일을 만든다. 수용자는 낯선 예술 작품 안에서 반복되는 요소들을 감지해 이를 특정 예술가 고유의 스타일로 인지한다. 이때 스타일의 구축은 예술가

35 Susan Sontag (1961), “On Style”,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Noonday Press, p. 22. 강조는 인용자.

개인의 감각적 각인 작업인 동시에 그녀가 속한 시대가 같이 관여하는 일이다. 스타일은 현실과의 거리를 조율하는 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sup>36</sup>

스타일은 곧 세계에 대한 감각과 앎의 각인이라는 손택을 경유해 생각하면, 미니멀리즘이라는 앎의 스타일에는 배제와 음소거를 통한 회복도 있지만, 버려진 것들의 비가시성이 드리우는 불안도 있다. 미니멀리즘 문학에 나타난 배제의 결과에 주목하면 회복의 공간 구축이 가진 보수성만을 보게 되지만, 배제의 과정에 주의를 기울이면 회복 이전의 불안을 사유할 수 있다. 디디-위베르만(Georges Didi-Huberman)이 지적하듯, 미니멀리즘의 역설은 가시적 표면을 가지는 동시에 그 표면들로 둘러싸인 비가시적 내부를 동반한다는 점에 있다.<sup>37</sup> 미니멀리즘 문학의 역설 역시 회복적 공간 구축이라는 명백한 표면이 불안이라는 불투명한 이면을 동반한다는 데 있다. 카버의 단편에서 끊임없이 다층적인 차원에서 등장하는 반복은 이러한 불안의 징후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니멀리즘뿐 아니라 스타일 자체가 차이의 운동이자 파열의 힘이기도 하다. 데리다(Jacque Derrida)는 니체 텍스트의 혼종적 스타일을 분석하면서, 스타일을 “차이의 운동”으로 정의한다. 데리다에 따르면 진리의 의미를 고정하거나 다른 진리를 찾는 것이 니체의 목적이 아니었다. 니체에게 글쓰기라는 차이의 운동이 없었다면, 그의 철학이 그의 스타일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면, 니체의 작업은 또 다른 안티테제를 찾는 일에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니체가 보여준 것은 스타일의 근본적 저항성, 즉 텍스트에서 벌어지는 차이의 운동이 단일한 테제의 내용으로 환원되지 않게 하면서 의미 종결을 방해하는 파열의 힘으로서의 스타일이다.<sup>38</sup> 버사니(Leo Bersani)가 프로이트에 대한 해체적 독해를 통해 제안하는 텍스트

36 Sontag (1961), p. 30.

37 안수진 (2021), 「정후의 오브제: 미니멀리즘에 대한 정신분석적 재해석 미학」, 『美學』 87권 2호, p. 4.

38 Jacques Derrida (1978), *Spurs*, Chicago: U of Chicago P, p. 95, p. 99.

의 미학화 역시 같은 맥락이다. 버사니는 텍스트가 미학화한다는 것은 자체의 구조화하고 형식화하는 열망을 스스로 문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문학이라는 것은 글쓰기가 어떤 행위로 전환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행위로서의 문학은 특정한 종류의 반복을 통해 그 자신의 진술을 침식해가는 것이다. 형식으로 물화되는 것을 깨는 것, 형식적 유희에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곧 행위로서의 문학이며, 텍스트가 미학화하는 것이다.<sup>39</sup>

이처럼 스타일을 파열의 움직임으로 보면, 미니멀리즘은 불안이라는 힘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요컨대, 회복적 공간 구축에 내적으로 저항하면서 그 형식화를 침식해가는 불안이라는 힘이 미니멀리즘의 분열적 운동을 구성한다. 손택의 지적처럼 스타일의 구축 과정은 창작자가 현실과의 거리를 조율하는 역사적 행위이기 때문에, 미니멀리즘을 차이의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회복의 언어를 역사화하는 한편 불안을 촉발하는 타자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1970-80년대 미국문학 미니멀리즘을 회복적 공간 구축과 그것을 허무는 불안의 분열적 운동으로 보는 이 글의 논의가 21세기 회복적 독해, 비평적 미니멀리즘과 연결된다. 회복을 말하는 비평적 미니멀리즘이 회복이라는 언어의 물화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파열하는 차이의 운동이 될 때, 구호나 테제가 아니라 세계를 감각하고 읽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 될 수 있다. 회복적 독해가 힐링과 치유라는 신자유주의적 자기계발의 언어로 치환되는 지점들을 경계하면서 그 자체를 역사화할 때, 비평을 스타일링할 수 있다.

---

39 Leo Bersani (1986), *The Freudian Body: Psychoanalysis and Art*, New York: Columbia UP, p. 11.



## 참고문헌

- 안수진 (2021), 「징후의 오브제: 미니멀리즘에 대한 정신분석적 재해석 미학」, 『美學』 87권 2호, pp. 1-33.
- Anker, Elizabeth S. and Rita Felski (2017), *Critique and Postcritique*, Durham: Duke UP.
- Barth, John (1986), "A Few Words About Minimalism", *The New York Times*, 28. Dec.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6/12/28/books/a-few-words-about-minimalism.html>
- Bell, Madison (1986), "Less is Less: The Dwindling American Short Story", *Harper's*, April, pp. 64-69.
- Bennett, Eric (2015), *Workshops of Empire: Stegner, Engle, and American Creative Writing During the Cold War*, Iowa City: U of Iowa P.
- Bersani, Leo (1986), *The Freudian Body: Psychoanalysis and Art*, New York: Columbia UP.
- Best, Stephen and Sharon Marcus (2009), "Surface Reading: An Introduction", *Representations* 108, pp. 1-21.
- Carver, Raymond (1976),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New York: Vintage.
- Carver, Raymond (1983), *Cathedral*, New York: Vintage.
- Dango, Michael (2022), *Crisis Style: the Aesthetics of Repair*, Stanford: Stanford UP.
- Derrida, Jacques (1978), *Spurs*, Chicago: U of Chicago P.
- Doherty, Margaret (2015), "State-Funded Fiction: Minimalism National Memory, and the Return to Realism in the Post-Postmodern Age", *American Literary History* 27(1), pp. 79-101.
- Elliot, Jane and Gillian Harkins (2013), "Introduction: Genres of Neoliberalism", *Social Text* 31(2), pp. 1-17.
- Leavitt, David (1985), "New Voices and Old Values", *The New York Times*, 12 May,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5/05/12/books/new-voices-and-old-values.html>
- McGurl, Mark (2009), *The Program Era: Postwar Fiction and the Rise of Creative Writing*, Cambridge: Harvard UP.
- Mukherjee, Bharati (1988), "Immigrant Writing: Give Us Your Maximalist!", *The New York Times*, 28. Aug., Web. 2024. 8. 8. <https://www.nytimes.com/1988/08/28/books/immigrant-writing-give-us-your-maximalists.html>
- Reber, Dierdra (2016), *Coming to Our Senses: Affect and and Order of Things for Global*

*Culture*, New York: Columbia UP.

Sedgwick, Eve Kosofsky (2003), *Touching Feeling: Affect, Pedagogy, Performativity*, Durham: Duke UP.

Seltzer, Mark (2016), *The Official World*, Durham: Duke UP.

Sontag, Susan (1961), "On Style", *Against Interpretation and Other Essays*, New York: The Noonday Press.

Stuelke, Patricia Rachael (2021), *The Ruse of Repair: US Neoliberal Empire and the Turn from Critique*, Durham: Duke UP.

원고 접수일: 2024년 7월 23일, 심사완료일: 2024년 7월 31일, 게재 확정일: 2024년 8월 7일

## ABSTRACT

# Minimalism as a Style of Reparation and Anxiety

Kim, Jungha\*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minimalism and minimalist style. Critical minimalism, or reparative reading, is a key hermeneutic method in 21<sup>st</sup>-century criticism. It seeks affective knowledge that finds relief in suspension from history, reducing the scale of critique. How, then, might the style of minimalism, which has built its own aesthetic history since the early 20<sup>th</sup> century, provide insight into critical minimalism? The paper focuses on 1970s-80s American minimalist literature, analyzing how its conservatism, shaped by compromise and reparation, ultimately reaffirmed domestic white supremacy and international American exceptionalism. Raymond Carver's short stories illustrate these discussions. However, a closer look at repetition in Carver's works reveals an underlying anxiety that resists the logic of reparation, highlighting minimalism's dialectical movement. The conclusion suggests that critical minimalism can "style" criticism by historicizing the language of reparation and reflecting on the anxiety within its rupture.

**Keywords** Minimalism, Reparative Reading, Eve Kosofsky Sedgwick, Raymond Carver, Anxiety, Vietnam War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